

특허청, 환경화학심사팀 안미정 팀장 발탁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팀장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업무 전문가에 안미정 팀장을 발탁함으로써 성별과 연공서열을 갠 승진을 단행해 주목받고 있다.



2005년 정부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특허청은 서기관 승진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여성 박사 특채자를 환경화학심사팀장으로 4월11일 승진 임용시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구현했다.

화제의 인물은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의장을 역임한 국제업무 전문가 안미정 팀장으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시카고 러쉬(Rush) 의과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1997년 산업자원부 박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1999년부터 특허청에서 생명공학분야의 심사·심판업무 및 국제협력업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안미정 팀장은 “환경화학심사팀장으로서 환경 및 에너지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적 이슈와 한미 FTA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4년 박사 특채자를 선발한 이래 최초로 여성 박사 특채자를 중앙행정부처 과장급인 팀장으로 배출하게 됐으며, 여성 서기관 10명이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수년 내 여성 간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6/04/11>